

외국의 고령친화적 지역사회개발 검토 및 시사점¹⁾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1. 들어가는 말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많은 영역에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 생산성 감소, 경제침체, 부양 인구 증가 등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사회적 위기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율이 높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고령친화적 지역사회(elder-friendly community)개발 사업은 고령화를 새로운 사회적 변화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하나의 움직임이다. 기존의 지역사회개발이 '경제발전'을 주요 개념으로 활용한 것에 반해,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개발은 지역사회 개발의 새로운 개념으로 '고령친화성(edler-friendliness)'을 도입한 것이다.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개발사업은 캐나다 퀘벡거리의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프로젝트(EFCP: The Elder Friendly Communities Project), 호주 애들레이드(Adelaide), 미국 클리브랜드(Cleveland)의 Successful Aging Initiative와 뉴욕의 The AdvantAge Initiative등 고령화율이 높은 도시에서 2000년 이후 진행되고 있다. 또한 WHO에서는 Age-friendly Cities의 건설을 위한 지침을 개발함으로써 '고령친화성'을 지역사회가 도달해야 할 목표로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지역사회에서의 고령친화성을 고려한 지역개발의 움직임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점차 강화되면서 지역개발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이 경제발전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친화성'을 고려한 지역개발은 부족한 실정이다. 2006년 정부에서는 '고령친화

1) 본 글은 정경희·이윤경 외(2008), 「초고령지역의 보건복지 모형설계를 위한 세부지침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가족부 연구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을 밝힘.



모델지역 시범사업'을 수행중에 있으나,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개발사업과는 추진배경과 과정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보다 고령화 현상을 앞서 경험한 외국의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개발 사례의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지역에서의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2. 고령친화적 지역사회의 개념 및 특성

'고령친화적 지역사회'의 정의는 사회·경제적 환경, 노인의 욕구, 그리고 지역사회와 주민 등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의를 따를수는 없다. 서구의 논의들을 살펴봐도 일부 문헌에 개괄적인 설명이 존재할 뿐,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용어 자체에 대한 이론적인 정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는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존중받으며, 역동적으로 생활하고, 그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 및 서비스가 지원되는 곳'으로 이해되고 있다(Alley et al., 2007). 미국 클리브랜드(Cleveland)의 Successful Aging Initiative(2004)는 고령친화적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는 지역 노인의 협력 하에 고령화에 대비하는 평가, 계획, 그리고 실천 등 지역사회 건설 과정에 관여하며, 이것은 결국 성공적 노화를 극대화하는 정책 및 활동으로 나

타난다고 설명한다.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관련 논의들은 대부분 고령친화적 지역사회에 대한 정형화된 의미를 제시하기 보다는 '지역사회개발(communitiy development)'이라는 측면에서 주민 스스로 그 정의 및 방향성을 도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Austin et al., 2001, 2007; Feldman & Oberlink, 2003; Successful Aging Initiative, 2004; Hanson & Emler, 2006).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노인, 공무원, 각종 서비스 제공자, 시민 활동가,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고령화를 대비하여 지역사회 의 실태를 진단·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계획하고, 그것을 함께 실천한다. 그리고 그 시작 단계에서 노인을 포함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지역의 고령친화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방향성을 설정한다. 즉, 고령화와 관련된 지역사회 현안들을 지역 내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결정하는 지역사회개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사회개발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고 있던 노인들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평가, 계획, 실천의 단계에 참여하는 풀뿌리(grass-roots)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즉,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는 그 용어의 일반적 의미에,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사회개발 과정을 통칭하는 동태적 의미를 함께 갖는다.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은 2000년을 전후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서구의 여러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각기 다른 주체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사한 형태의 특성들이 발견된다. 다수의 프로젝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을 통해 고령친화적 지역사회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는 'aging in place'²⁾ 개념의 확산과 함께 시작되었다. 과거 서구에서는 사람이 나이가 들고 약해짐에 따라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를 위해 거처를 옮겨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aging in place' 개념, 즉 별도의 시설이나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주택을 개조하거나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거주지에서 계속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모두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레 'aging in place' 개념이 보편화되었으며, 노인의 욕구는 물론, 지역의 복지서비스,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부분까지 점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Austin et al., 2001:9).

둘째,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는 지역사회개발, 또는 주민사업(neighborhood work)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지역사회개발 분야에서 저평가되던 노인이 주요 고려대상이 되며, 동시에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는 지역공동체 내에서 개인적 영역에 의존하던 노인 관련 현안들을 사회적으로 조화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는 몇 가지 과정을 통해 단계(phase)별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평가(assessment), 계획(planning), 실행(implementation)의 단계를 갖게 된다. 경우에 따라 평가를 담당할 태스크포스(task force)나 운영위원회 등 실무진을 조직하는 단계가 앞부분에 포함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고령친화성'을 평가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노인, 지역사회 지도자, 공무원, 시민단체 등 각종 이해관계자들이 전문가와 함께 지역사회의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는다. 복잡하고 다양한 주제분야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각 주체별로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고, 계획 및 실행 단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큰 지지기반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는 노약자뿐 아니라 활동적인 노인까지 모두 고려한다. 지금까지 관련 프로그램들이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심이었던 것에 비해,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는 노약자를 위한 각종 서비스는 물론, 건강한 노인을 위한 건강관리, 안전성, 이동성의 보장,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 및 각종 사회활동 등 다양한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다. 고령친화적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은 건강보호 등 각종 서비스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경험을 토대로 지역사회 역량 및 사회적 자원을 건설하는 데 활발하

게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 역시 이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는 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모든 연령, 모든 조건의 거주자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한다. 본질적으로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는 노인 및 노인 가족들의 편의와 지원을 위해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 정책, 그리고 시설 등 지역의 자원들을 노인들이 좀 더 사용하기 쉽게(user-friendly) 만드는 것이다(Beier, 1997). 대개 교통, 주거, 건강보호, 안전, 존중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재정 및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고려한다. 청장년층이 미래의 노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그 결과로서 제공될 건강보호서비스, 쾌적한 주거환경, 이동성의 보장 등은 노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유용할 수 있다. 실제로 Feldman & Oberlink(200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성공적 노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한 요소들이 청년층

에게서도 똑같이 언급되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고령친화적 지역사회의 결과는 노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3.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개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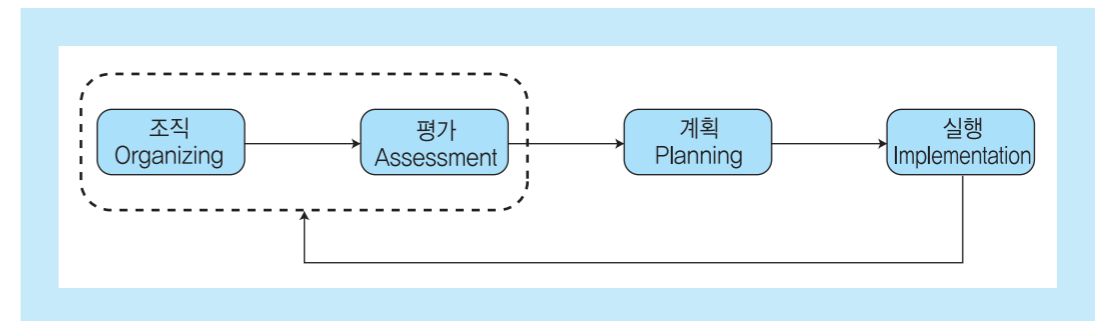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개발 과정은 개발 프로젝트마다 차이가 존재하지만, '평가', '계획', '실행' 등의 단계를 거쳐 수행되고 있다.

미국 클리브랜드의 SAI(Successful Aging Initiative)가 Cuyahoga County 지역에서 실행한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건설(Elder-friendly Community Building)' 사례는 개발과정을 조직, 평가, 계획, 실행의 4단계로 추진하였다.

가. 조직(Organizing)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필요한 첫

그림 1.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건설의 주요 단계



2) 일부 국내문헌에서 'aging in place' 용어를 '정주성(定住性)', '에이징 인 플레이스'로 표현하고 있지만, 주거의 의미로 제한적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어 원문 그대로 사용하였음.

번째 단계는 태스크포스를 조직하는 것이다.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건설은 지역사회의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장, 의회, 담당부서, 지역의 관련기관, 각종 위원회 등 노인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주체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무원, 노인문제 전문가, 노인을 위해 일하는 활동가, 노인 대표자, 그리고 미래에 노인이 될 준고령자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개인 및 조직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도록 한다. 또 태스크포스의 인적구성은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성, 연령, 소득, 그리고 인종이나 민족까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약 20~25명 정도의 인원이 적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아래는 태스크포스의 구성에 고려해 볼만한 기관 및 대표자의 목록이다. 전체적으로 지역의 행정, 입법, 경제, 주택, 안전, 보건, 여가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첫번째 단계에서 태스크포스의 조직 외에 전문 컨설턴트를 확보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건설은 지역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자료수집을 돕고, 평가를 관리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컨설턴트가 절실히 요구된다. 컨설턴트는 관련분야의 경험이 많은 연구진 및 활동가 중에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평가(Assessment)

태스크포스가 구성되면 지역사회의 고령친화성을 평가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시작된다. 평가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파악하고, 노인들의 욕구를 확인하고, 그들의 생활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를 말한다. 지역사회에 대한 평가는 지역사회를 고령친화적으로 건설하

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태스크포스에서 진행될 논의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부 조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전문적인 작업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거나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컨설턴트의 역할이 강조된다.

각 지역사회는 특유의 자산(asset) 및 환경에 따른 고유의 평가과정을 가질 수 있다. 평가는 다양한 주제와 그 복잡성을 고려하여 몇 가지 분야로 구분되어 진행될 수 있다. 각 분야마다 세부영역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각 세부영역은 이를 대표하는 몇 개의 지표들로 구성된다. 기본적으로 세부영역(목표)들은 지자체, 기업, NPO 등 지역사회의 책임 하에 다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된다.

클리브랜드의 SAI(Successful Aging Initiative, 2004)의 경우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지표는 노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지역사회에서 그들의 욕구에 관한 서비스 및 환경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노인들의 가치는 어떠한지에 관한 정보를 도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각 분야는 하나 이상의 목표와 다수의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관식의 문항과 객관식 또는 통계자료가 필요한 문항으로 구성되고 있다.

실질적인 평가는 다음의 세 가지 순서로 진행된다.

첫째, 설문지와 주요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한다. 센서스, 주민등록 등의 통계자료, 설문을 통해 수집된 정보, 기타 이용가능한 양적자료들을 정리한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가정방문면접(in-home interview)을 실시하고, 실제로 지역사회를 관찰하는 등 질적자료를 함께 수집한다.

둘째, 수집된 자료 및 정보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각 지표 및 문항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다 보면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각 영역별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지표 및 영역별 특성을 중심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태스크포스는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분석한다. 계획단계에서 언급될 필요가 있는 지표들을 판단하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그 장단점을 확인한다.

다. 계획(Planning)

태스크포스는 평가단계에서 언급된 문제점들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들을 준비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장점은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고, 문제점은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인 실천방안, 세부일정에 관해 논의하고, 계획의 실행을 위해 필요 자원이 분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획의 특정 부분별 책임주체를 선정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파악한다.

주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역의 종합계획

표 1.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건설 태스크포스 구성원 예비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또는 대표자 • 의회 의원 • 고령화 관련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 관련 법에 정통한 건설전문가 • 도시계획위원회 대표 • 주택·부동산 전문가 • 소비자보호 전문가 • 주택중개업자 • 치안 및 소방안전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병리학자 • 상공회의소 및 소매상인 대표 • 도시공학 전문가 • 지역 교통관리기관 • 노인 대중교통 제공기관(민간/비영리) • 여가 담당부서장 또는 대표 • 지역 교육기관 및 교육전문가 •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교기관 • 노인 대표자 및 향후 예비노인
--	--

자료: Successful Aging Initiative(2004).

(master-plan)과 연계되어야 한다. 또 지역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립된 계획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떤 분야의 경우 1년, 3년, 또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계획이 필요할 수 있다. 태스크포스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고,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특정 분야에서 파악하기 힘든 요소들까지 고려하여 지역사회에서 공감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태스크포스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이다.

라. 실행(Implementation)

마지막 단계는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수립된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을 말한다. 의회와 위원회는 관련 조례와 예산을 검토하고, 기업 및 비영리기관(NPO) 등 각각의 단체들은 그들의 상품 및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변경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실행단계에서는 관련 기관은 물론, 노인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태스크포스는 이 단계에서 주요 계획의 실행 및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계획 단계에서 설정한 세부항목의 목표가 달성되거나 기간이 종료된다면, 다시 조직 및 평가 단계로 돌아가 그동안의 성과 및 개선방안을 재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은 결국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건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 되며, 해당 지역사회는 궁극적으로 모든 연령집단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모두에게 좀 더 매력적인 곳으로 변화되어갈 것이다.

4 고령친화적 사회의 구성요소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는 캐나다, 호주, 그리고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국가 모두 공통적으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는 국가 내에서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 공통적인 현안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경제, 주거, 종교, 보건, 환경 등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과 구별된다.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를 건설하려는 시도들은 지역의 특성과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이동성 보장의 측면에서 도시지역의 경우 노인의 보행 환경을 언급할 수 있지만, 인구에 비해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대중교통의 유용성을 강조할 수 있다(Alley et al., 2007). 또 노인요양서비스 등 복지서비스의 제공의 측면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노인의 사회참여, 또는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것인지에 따라 각각 달라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진행된 고령친화적 지역사

회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저마다 고령친화적 지역사회의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각 프로그램들은 이를 위해 질적·양적방법을 통하여 노인들의 욕구와 서비스의 실태를 확인하고,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진단 및 평가 과정을 수행하였다. 각 프로그램들이 제시한 고령친화적 사회의 구성요소들은 영역별로 구분되어 있거나, 가치중심적인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캐나다 캘거리(the City of Calgary)의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프로젝트(EFCP: The Elder Friendly Communities Project)'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aging in place' 개념이 보편화되는 배경 속에서 캘거리대학(the University of Calgary)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의 주도로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EFCP는 2001년 1월, 캘거리 시(市)정부, 지역의 보건당국, 그리고 캘거리 대학의 협력으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마을과 도시 수준에서 노인복지서비스의 실태를 평가함으로써 노인과 그 가족들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강조하였다(Austin et al., 2001).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였던 Austin과 그의 동료들(2001)은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구성요소로서 지역사회 자산, 역량, 그리고 노인 및 그 가족들의 욕구를 언급하였다. 그들은 EFCP를 진행하면서 노인, 가족부양자, 지역사

회 지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고령친화적인 모습에 관해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과 가정방문면접(in-home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통해 (1) 가치있고 존경받는 존재, (2) 활동성 유지, (3) 지역사회 역량 강화, (4) 최저생활 보장, (5) 편안한 주거환경, (6) 안전, (7) 노인의 욕구충족 (8) 이동성 확보 등 고령친화적 사회의 기본요건이자 목표로 간주할 수 있는 8가지 주제를 규명하였다. 아울러 노인이 지역사회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또 다른 목표로 함께 설정하였다(Austin et al., 2005).

캐나다 캘거리의 노력은 2003년 말 호주 애들레이드(Adelaide)로 이어졌다. 호주 애들레이드 서부 4곳의 지역사회는 캘거리 연구팀의 도움을 받아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캘거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의 '고령친화성(elder friendliness)'을 평가하고, 지역사회 욕구수준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1)지역사회의 주거생활, (2)지역사회에 대한 유대, (3)이동성 확보, (4)활동성 유지, (5)욕구충족, (6)건강유지, (7)지역사회 역량강화 등 7가지가 주제가 애들레이드 지역의 중요한 문제로 확인되었다(Gursansky & Feist, 2005).

캐나다 캘거리와 호주 애들레이드의 사례는 모두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로 다루어야 할 몇 가지 분야들을 제시하고 있다.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에서 제시한 주제들은 상당히 유사하다. 위에서 제시된 분야들이

고령친화성 향상을 위한 목표로서 보편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고령친화적 지역사회’의 정의와 목표를 보다 가치중심적인 내용으로 제시하는 지역들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국에서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The AdvantAge Initiative는 지역사회가 주민들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취지에서 VNSNY(The Visiting Nurse Service of New York) 산하의 CHCPR(The Center for Home Care Policy and Research)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들은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를 위한 구성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의 네 군데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지역의 노인들이 밝힌 이상적인 고령친화적 지역사회의 모습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들은 이것을 종합하여 고령친화적 지역사회의 구성요소로서 4가지 주요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는 (1) 노인의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고, (2) 시민·사회활동의 참여를 장려하고, (3)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녕을 최대한 유지하고, (4) 노약자 및 장애인의 독립성을 극대화하는 곳이라고 밝히고 있다(Feldman & Oberlink, 2003; Feldman et al, 2004).

마찬가지로 미국 클리브랜드(Cleveland) 지역의 Successful Aging Initiative(2004) 역시 고령친화적 지역사회의 기본 구성요소 몇 가지를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령친화적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가능한 (1) 그들의 기본적인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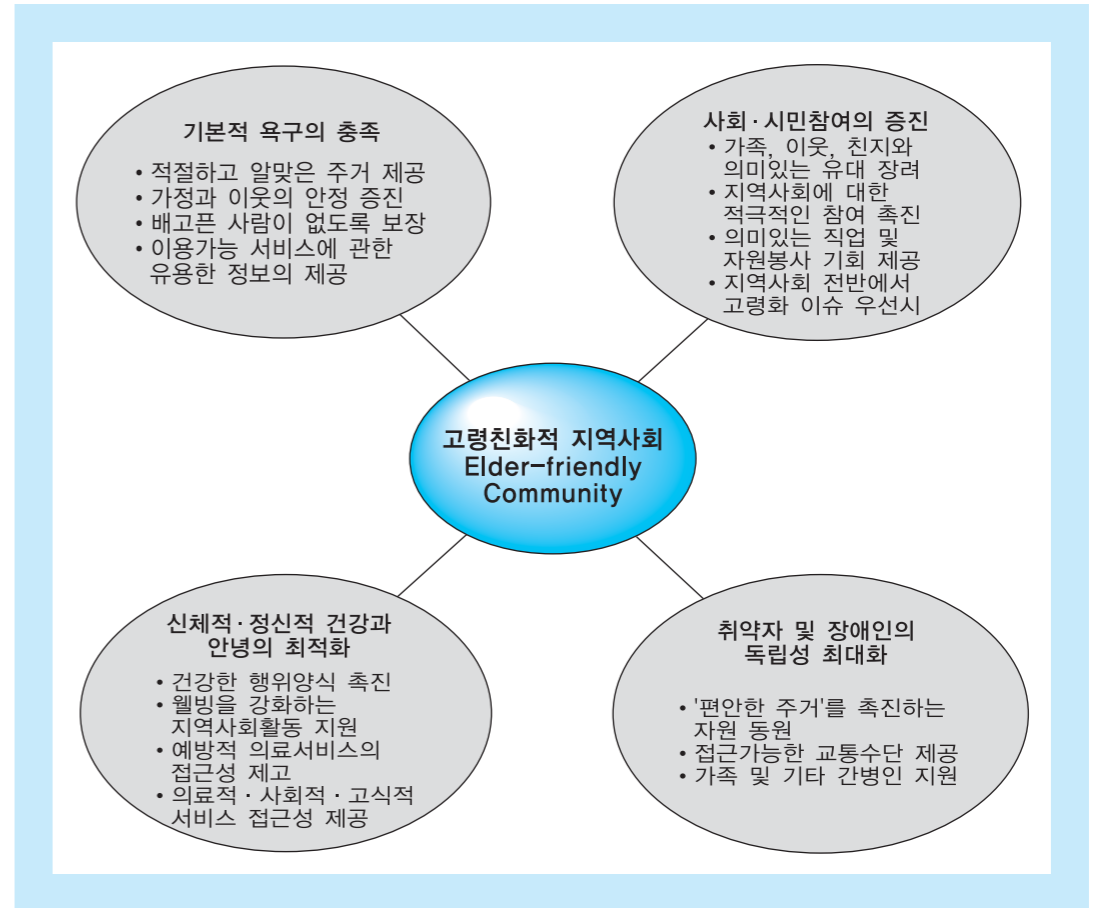
식, 주거, 의료 및 안전의 욕구를 충족하고, (2) 자급자족하고 독립적이며, (3)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건강하고, (4) 지역사회 기반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에서 지내며, (5) 지역사회에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서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프로그램은 대부분 유사하다. 프로젝트의 목표와 방향설정을 위해 주요 구성요소를 영역, 또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 구성요소는 대개 영역별로 교통, 주거, 건강보호, 안전, 존중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재정 및 환경에 해당한다. 구성요소가 차지하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서 중점을 두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지역의 특성 및 환경에 의해 다소간 차이가 있다(Alley et al., 2007).

5. 외국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개발사례의 시사점

외국의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개발은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여 노인을 비롯한 전 연령층이 편리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개발사업이다.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개발은 노인을 사회의 소외계층으로 취급하고, 사회적으로 부양해야할 짐으로만 여기던 예전 관점에서 벗어나,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와 자립적 노인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개발은 지역사회

그림 2. 고령친화적 지역사회의 구성요소: 미국 AdvantAge Initiative 사례



개발 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음에 큰 의미를 갖는다.

외국의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개발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사회에서 고령화에 대응하는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고령화를 사회적 위기로만 받아들이는 예전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개발의 새로운 방향으로서 ‘고령친화성’을 제시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 된 이후 지역마다 지역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은 경제개발, 일자리 창출 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고령친화성’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상당수의 지자체가 고령화율이 21%를 넘는 초고령지역(super aged society)이며, 이는 지역에서 노인이 더 이상 소수집단이

아닌 주류집단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와 같은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개발에서 고령친화성의 개념 도입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둘째,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개발은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개발에서는 지역의 공공기관, 단체, 민간 단체를 비롯하여 노인과 주민이 함께 지역의 고령친화성을 평가하고 진단하며, 이를 바탕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지역사회 개발 사업이 관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현재 정부와 시범사업 지역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령친화모델지역' 사업 또한 노인과 주민 보다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개발에서 노인과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데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우리 사회의 복지체계 역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는 노인복지의 보편성과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외국 사례들은 모두 노인과 그 가족들의 욕구 및 수요를 파악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고령친화성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및 구성요소로서 다양한 분야들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 단위에서 고령화를 대비

한 복지체계를 준비하거나, 노인복지를 교통, 주거, 안전, 존중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보건·복지서비스가 중앙의 부처 및 기관에 의해 건강보호서비스 위주로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에서 더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으며, 노인들이 가장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농어촌지역에서 가장 열악한 복지환경을 경험하고 있다. 지역의 노인들이 원하고 있는 복지현안들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적합한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체계로 조금씩 전환해야 한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역량 내에서 가능한 목표와 복지수준을 설정하고, 그 계획과 실천과정에 지역사회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 ■ ■ 참고문헌

Alley, Dawn, Phoebe Liebig, Jon Pynoos, Tridib Banerjee, & In Hee Choi, "Creating Elder-Friendly Communities: Preparations for an Aging Society,"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49(1/2), 2007, pp.1~18.

Austin, Carol D., David Flux, Laura Ghali, Debra Hartley, Dan Holinda, Robert McClelland, Jackie Sieppert, & Timothy

Wild, A place to call home: Final report of the elder friendly communities project, Retrieved March 13, 2008, from http://www.calgary.ca/docgallery/bu/cns/elder_friendly_communities.pdf.

Austin, Carol D., Elizabeth Des Camp, David Flux, Robert W. McClelland, & Jackie Sieppert, "Community Development With Older Adults in Their Neighborhoods: The Elder Friendly Communities Program," *Families in Society*, 86(3), 2005, pp.401~409.

Beier, Lucinda M., *Coming of Age in Rural Illinois: Developing Elder-Friendly Communities*, Normal, IL: Illinois State University, 1997, Retrieved March 13, 2008, from <http://www.asru.ilstu.edu/reports/RRFfirpt.PDF>.

David Hanson, Charles A Emlet, "Assessing a Community's Elder Friendliness", *Family and Community Health*, Gaithersburg, 29(4), 2006, pp. 266

Dawn Alley, Phoebe Liebig, Jon Pynoos, Tridib Banerjee & In Hee Choi, "Creating Elder-Friendly Communities: Preparations for an Aging Society",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49(1), 2007, p. 1

Feldman, Penny H, Mia R. Oberlink, Elisabeth Simantov, & Michal D. Gursen, *A Tale of Two Older Americas: Community*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Center for Home Care Policy & Research, 2004, Retrieved March 13, 2008, from http://www.vnsny.org/advantage/AI_NationalSurveyReport.pdf.

Feldman, Penny Hollander & Mia R. Oberlink, "The Advantage Initiative: Developing Community Indicators to Promote the Health and Well-Being of Older People," *Family & Community Health*, 26(4), 2003, pp.268~274.

Gursansky, Di & Helen Feist, West Adelaide: *A Place to Call Home*, Final report of the West Adelaide Elder Friendly Communities Project, 2005. Retrieved March 13, 2008, from <http://www.unisa.edu.au/hawkeinstitute/sprg/documents/West-Adelaide.pdf>.

Hanson, David & Charles A. Emlet, "Assessing a Community's Elder Friendliness: A Case Example of The AdvantAge Initiative," *Family & Community Health*, 29(4), 2006, pp.266~278.

미시건주 EFCP, Retrieved March 13, 2008, from http://www.successfulaging.org/images/Guide_to_EFC_Building.doc.pdf

호주 EFCP report, Retrieved March 13, 2008, from <http://www.wtcc.sa.gov.au/site/page.cfm?u=958><http://www.wtcc.sa.gov.au/site/page.cfm?u=880> 